

“취약계층 추위에 떨지 않게 연탄공장 다시 돌립니다”

르포-공장가동 연장한 남선연탄 가보니

줄줄이 찍혀 나오는 연탄에 활기...광주·전남 4500여 가구 ‘안도’ 계속 가동 위해 공장 축소 이전 검토...광주시·전남도 ‘적극 협의’

“곧 겨울인데, 저희마저 사라지면 안 돼죠” 30일 오전 8시께 광주일보 취재진이 찾은 광주시 남구 송하동의 ‘남선연탄’에서는 운전기(연탄을 찍어 내는 생산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경영난 탓에 지난 6월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다 단(6월 12일자 광주일보 6면) 연탄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에서 연탄 수백 장이 줄줄이 찍혀 나왔다. 컨베이어 벨트 옆에는 순서대로 화물차로 연탄을 받아가는 소매업자들이 연탄을 화물칸에 싣고 있었다.

40년째 남선연탄에서 연탄을 받는 소매업자 오병남(여·83)씨는 “매년 연탄을 찾는 분들이 지난 6월 남선연탄 폐업 소식을 듣고 올 겨울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뿜었다.

남선연탄측에 따르면 지난 1954년 문을 연 광주 지역 유일의 연탄공장인 남선연탄은 경영난 악화 등을 이유로 지난 6월 폐업하기로 결정했지만, 지난 16일부터 공장을 재가동했다.

남선연탄은 연탄 이용가구가 꾸준히 감소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돼 폐업을 결정했지만, 곧 다가올 겨울에 대비해 취약계층 등 연탄가구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연탄을 계속 찍어내기로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꾸준한 요청도 있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연탄가구(광주 1000가구, 전남 3500가구)가 올 겨울에도 연탄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올해 69주년을 맞은 남선연탄은 과거 매해 1억장 이상의 연탄을 생산하다 점차 생산량이 감소했다.

연탄 출하량이 줄게 돼 전체 부지(1만9834㎡) 중 절반이 공터로 남게 됐고 운전기 한기로 주 3일(월·수·금) 정오까지 짧은 시간만 운영해도 될 정도다.

하지만 남선연탄 측은 연탄 생산을 계속 하고 싶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남아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이 남선연탄 측의 설명이다.

최근 인근에 들어선 아파트에서는 ‘연탄 가루가 날린다’는 민원이 매일 빗발치는 등의 민원을 해결하고 경영악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그만 부지로 공장을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장 규모를 줄여 낭비되는 땅과 자원을 아끼는 한편, 공장 인근에 주민이 없는 곳으로 공장을 옮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적당한 부지는 찾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광주시와 전남도도 같이 고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와 전남도 관계자는 “연탄을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취약계층을 위해서라도 우리 지역의 연탄공장이 있어야 한다”며 “겨울이 지나간 뒤 공장 이전 부지에 대해서는 협의해보겠다”고 설명했다. 남선연탄 관계자는 “최근에도 올 겨울을 대비해



30일 오전 8시 광주·전남 유일의 연탄공장인 광주시 남구 송하동 ‘남선연탄’ 공장 컨베이어 벨트에서 쏟아지는 연탄을 소매업자들이 차량에 싣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연탄을 찾는 전화가 매일 5건 씩은 온다”며 “겨울 생각에 업무를 재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일본은 한국의 동학 보고 민주주의 배워야”

한국 찾은 일본 동학기행단 나주동학사죄비 제막식 참석

“한국의 동학농민혁명에는 민주주의를 보여주는 근본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동학을 보고 민주주의를 배워야 합니다.”

30일 오전 나주시 죽림동 나주역사공원에서 열린 ‘나주 동학농민혁명군 희생자를 기리는 사죄비(사죄비) 제막식’에 참석한 일본인들의 말이다. <관련기사 21면>

사죄비에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나주 동학군에 대한 일본군의 만행을 사죄하는 뜻이 담겼다.

제막식에는 일본에서 나주를 찾은 20여명의 일본 동학기행단이 함께 했다. 이들은 2006년부터 매년 한국을 찾고 전국의 동학유적지를 방문, 사죄비를 건립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118만엔(1171만원)을 기부했다.

제막식에 참석한 조마루 요이치(69) 아사히 신문 논설위원은 “일본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보고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생 시절에도 한국을 자주 여행했지만 동학을 알지 못했다”면서 “2016년 나가츠카 아키라 나라야데 명예교수의 저서 ‘동학농민전쟁과 일본’을 읽고 동학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다”고 동학을 알게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동학은 당시 조선의 민초들이 어떤 나라에서 살아갈지를 스스로 정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근본을 보여준다”면서 “독재에 저항하고 감지하 시인의 말인 ‘일본이 한국을 민주화하



30일 나주시 죽림동 나주역사공원에서 일본 동학기행단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학농민군 희생자를 기리는 사죄비 제막식’이 열렸다.

는데 이바지했다고 하면서, 일본이 먼저 민주화하라’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재일교포 신민자(여·73)씨도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으려 했지만 그 안에서 민주화를 위한 조선인들의 움직임이 있었다”며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은 동학정신이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씨는 “동학혁명군들은 어떤 나라에서 살아가지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을 보여 줬다”면서 “동학은 어릴 적 일본에서 교포로 살며 소외감을 느끼고 자란 나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하타노 요시코(여·85)씨 역시 “고등학교 때 동학농민혁명을 배웠지만 일본선생님은 ‘무식한 자들의 반란’이라고 말했다”면서 “하지만 배우면 배울 수록 동학은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주권회복을 위

한 몫부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후 감명을 받아 동학정신을 공부하기 위해 한국을 20년 이상 방문하며 동학 유적지를 직접 찾았다.

이노우에 가츠오 한일 동학기행 시민교류회 대표는 이날 제막식에서 “사죄비는 한일 양국 시민들의 평화와 인권확립을 향한 결의”라며 “다시 한번 동화 농민군 생자와 한국 모든 분에게 일본인으로써 추도하고 사죄한다”고 말했다.

사죄비는 지난 2019년 10월 나주시와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일본 동학기행단간 MOU(업무협약)를 체결해 기부금을 통해 건립됐다.

한편, 제막식에서는 하루 전인 지난 29일 사죄비 건립에 앞장선 나가츠카 아키라 나라야데 명예교수의 별세소식이 알려지자 애도의 물결이 일었다. /글·사진·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시민이 안전한 치안 서비스 펼칠 것”

한창훈 광주경찰청장

한창훈(55·사진) 신임 광주경찰청장은 30일 “광주시민이 안전한 광주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광주경찰청 무등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안전, 시민 개개인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게 경찰의 기본적인 소명임을 잊지 말고 불법과 부정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 청장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 서민 경제를 파탄하게 하는 각종 피싱범죄 등이 개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가져다 준다”면서 “경찰 개개인의 노력은 치안서



비스의 고객인 광주 시민의 안전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청장은 또 “경찰의 존재 이유는 경찰을 신뢰하는 국민 때문”이라며 “경찰이 국민의 믿음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무안 출신으로 1997년 간부후보생으로 임용돼 2021년 12월 경무관 승진 후에는 광주청 공공안전부장, 서울청 교통부장을 지내다 지난해 12월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도민의 일상 지키기 위해 ‘정성치안’ 최선”

박정보 전남경찰청장

박정보(55·사진) 신임 전남경찰청장은 30일 “도민의 일상을 지켜드리는 정성(精誠)치안”을 주문했다.

박 청장은 30일 전남청 5층 오피스마루에서 전남경찰청 지휘부와 상견례 자리에서 취임 인사를 전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전남도민의 신뢰와 사랑을 잃은 경찰은 존재할 수 없다”면서 “도민의 편에 서서 도민과 함께하는 도민중심 경찰활동을 펼쳐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야 한다”면서 “주민참여 치안의 확대 강화와 ‘정성치안’을 주문했다.



박 청장은 “도민들은 소소해 보이는 일이라도 정성스럽게 처리하고, 성실하고 따뜻한 경찰의 모습을 보면 더 크게 감동하고 확고한 신뢰와 사랑을 보내주실 것”이라며 “일상의 소소한 일로 보이지만 당사자에게는 태산같이 무거운 일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모든 업무에 정성을 들이겠다”고 당부했다. 진도출신인 박 신임 청장은 1994년 간부후보 42기로 경찰에 입문해 지난해 8월 치안감으로 승진해 서울청 수사차장을 역임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땅끝이라 더 깨끗합니다

해남이라 더 건강합니다

신규회원 가입시
3,000원
WELCOME COUPON

구매후기 이벤트 추천
농수산물 및 기념품 증정

기획상품 할인행사
50%까지 할인
DISCOUNT EVENT

문의 080-859-1100 | www.hnmiso.com